코로나 시대, 랜선·TV 성도재일 '대세'

사찰 온라인법회, 방송사 특집 프로 선보여

조계사·봉은사 유튜브 중계
스님들만 대웅전에서 기도해
전국사찰 기도중단한곳 다수
BBS·BTN 특집 편성 '확대'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온라인에서 기도가 진행된다. 대규모 철야정진 및 법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성도재일 기도를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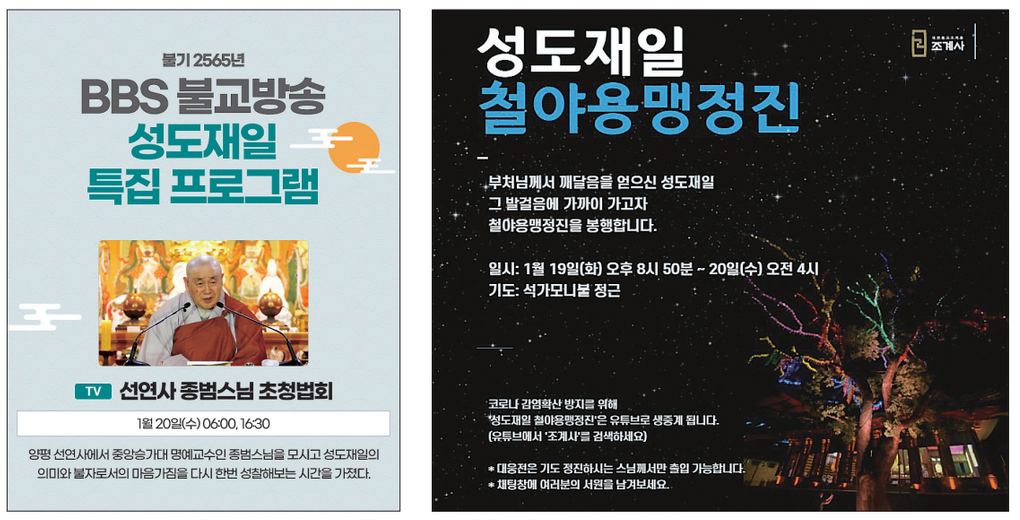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월 13일 카카오채널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이번 성도재일 철야용맹정진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고 기도에 온라인으로 동참해 달라고 공지했다.

조계사의 경우 매년 성도재일을 맞아 1주일 기도부터 철야용맹정진 기도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매서운 상황에서 조계사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석가모니불 정근기도는 정진하는 스님들만 대웅전에 출입하되, 유튜브 채팅창에 서원을 남기면 스님들이 참조하여 함께 기도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도 코로나19로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자 스님들만 철야정진을 진행하고 봉은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기로 했다.

봉은사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스님들만 진행하도록 했으며, 지난해부터 활용해온 유튜브를 통해 기도를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BS불교방송 성도재일특집 안내와(사진 왼쪽)와 조계사 유튜브 용맹정진 안내 배너.

이밖에 범어사, 통도사 등 성도재일 특별정진을 진행하던 교구본사와 말사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회를 취소하고 개인적인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불자들이 사찰로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계 방송사들은 성도재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BBS불교방송의 경우 성도재일 특집을 편성해 당일인 1월 20일 △선연사 종범 스님의 초청법회(오전 6시, 오후 4시 30분)를 시작으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처님 행적답사기(오후 7시 30분), △광우 스님의 부처님 성도이야기(오전 11시 30분, 오후 10시 30분), 존카밧진을 만나다(오후 12시 30분) 등을 TV에서 방영한다. 라디오에서는 △무명을 밝히고 특집 '붓다의 질문'(오후 5시), △지금은 수행시대(오전 11시) 등도 편성했다.

특히 '무명을 밝히고' 붓다의 질문은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과 불교인재원 박희승 교수가 '생로병사'와 생사해탈의 의미와 우리 시대 고통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BTN불교TV는 1월 20일 조계종 부산연합회의 찾아가는 승보공양대법회(오전 11시 30분, 오후 8시) △성도재일 특집 '지금 바로여기'(오후 2시) △특집다큐 '깨달음의 상징, 의발'(오후 11시 20분) △축서사 무여 대종사 초청법회(오후 1시) 등을 선보인다.

BTN측은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을 다지고 정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앱과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국제포교 활성화 신호탄"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 취임
1월 9일 언택트 취임식 봉행
전국포교사 네트워크화 제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이재홍·사진)가 1월 9일 서울 전법회관에서 열린 국제포교사회 정기총회서 비대면 방식으로 신축년 신년법회와 11·12대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임원들만 참석했으며, 전국의 회원들은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재홍 신임회장은 이날 제도 정비와 회원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다.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3가지 중점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먼저 교육과 법회, 행사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을 위해 비대면 운용방법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이취임식과 같이 국제포교사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온라인상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포교역량 강화를 통한 참여와 봉사기회 확대도 필요함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비대면 화상회의 운용방법 강습을 통해 누구에게든 온라인으로 포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부터 시작된 국제포교사의 해외파견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해외포교 전통을 발전시킨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 회장은 "'문경세계명상마을' 등 국내에서의 외국인 대상 포교에 회원들의 참여를 늘리고 나아가 국제포교사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해 위상을 강화시킬 방안을 종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자다. 1987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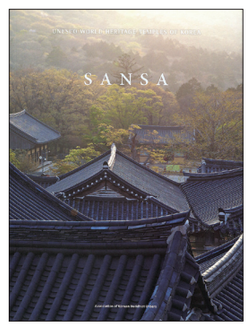
이 회장은 불광불교대학·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2009년 국제포교사 14기생으로 국제포교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포교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포교사회는 3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57기 기초불교영어를 온라인강좌를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되며 총 10개 강좌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등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수업이 진행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10만원, 학생은 5만원으로 전과정을 이수하면 수강생들에게는 조계종 포교원이 인증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02)722-2206

노덕현 기자

유네스코 등재 '산사' 7곳 영문 안내책자 발간

종단협, 14번째 한국불교안내서
포교 목적 2000권 비매품 제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산사 7곳에 대한 영문 안내서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표회장 원행)는 최근 한국불교 소개를 위한 14번째 외국어 단행본〈SANSA〉를 발간했다.

〈SANSA〉는 지난 2018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된 산사 일곱 곳의 사찰답사 안내서다. 영문과 국문을 교차편집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읽을 수 있으며, 일러스트 지도를 수록해 답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원고는 주수완 미술사학자가 집필했으며, 번역은 박희원 통번역가가 맡았다.

특히 〈SANSA〉는 일곱 산사의 역사 및 문화, 불교사상과 신앙적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와 가치를 조명했을 뿐 아니라 각 사찰 별 대표전각과 문화재를 비롯한 고유한 특징을 100여 점 사진을 함께 담아냄으로써 역사의 흔적들을 되짚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단협은 해당 책자를 포교목적에 따른 비매품으로 2000권 제작했으며, 소속 종단과 국내외사찰과 주한대사관, 해외 대사관과 도서관 등 전세계로 배포할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강북장애인福, 지역장애인 희망키트 지원

KT그룹 희망나눔재단 후원으로 100가정에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은 1월 13일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총 100가정에 희망키트(라면 1상자, 마스크, 허브티)를 각각 전달했다.

최근의 최강한파와 코로나19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지원은 지역사회 장애인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조석영 관장은 "코로나19 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 감사하다.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더 많은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관음전불사 및 불상구입자금 후원 안내


만월 (2mm 크리스탈 13만개로 조성된 석가모니불)
- 주지 행만스님 작 -

귀의삼보하옵고!
해외,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30년 동안 모셔온 불상이 4,000여점이 되었습니다.
소승이 모셔온 불상은 간다라 불상 및 마투라불상은 기원전으로부터 송나라, 명나라에서 청대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기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관음전 삼보전시관을 불사하기로 석가세존전에 언약하였습니다.
이중 티벳 불상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네팔, 일본, 태국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원사 관음전 삼보 전시관은 국내 유일한 티벳 불상 전시관이 될 예정이며 아직 성취관에 전시되지 못한 희소성이 많은 티벳 불상 600여점이 빛을 못보고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희소성을 간직한 티벳의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을 불사하여 불상의 기원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불, 보살님과 살아온 60여년의 세월, 38세에 불원사를 창건하다가 쓰레기더미에 있는 온도계 수은에 찔려 왼팔을 잃고 하루 한끼의 공양만으로 1000일 수행정진하다 뇌졸중을 쓰러지고 지금은 경동맥 협착증으로 훼손된 불상복원과 오색 크리스탈 개금, 창작개금 으로 한팔 잃은 스님으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젠 불, 보살님 크리스탈 개금으로 사군자, 십장생, 일월도를 새겨 놓고 있습니다.

소승의 목표는 동남아 불상을 관음전 삼보 전시관에 전시하는데 있으며 임종 그 날까지 단 한분의 불상을 수집하는데 일념을 다하고 임종 시 무일푼으로 세상과 하직 하겠습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은 초지일관 수행을 통하여 동남아 각국 불, 보살님을 찾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소승이 불사를 하지 않으면 불원사에 계신 불, 보살님이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기에 관음전 삼보전시관 후원을 불자님께 호소 드립니다.
그리고 기원전, 진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국시대의 희귀불상 수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리로서 전국 불자님들의 동참과 호소합니다.
관음전 삼보전시관에 불, 보살님을 정좌케 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관음전 불사 후원 및 고 불상 불, 보살님을 모실 수 있는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사오니 소승은 마음을 빌어 청 하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동기간에 우애하며 부부간에 화합하고 자손에게 사랑받고 육신은 병마, 액운 없이 건강장수를 기원드립니다.
불, 보살님의 가피로서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대한불교 조동종 불원사 **宣悳 행만** 합장

포항 불원사 성취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bulwonsa) 성불하십시오.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북면 기북로354번길 7-7

◈ 본 사찰은 약사여래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원력을 행하시고 계시는 원력도량입니다. ◈

※ 후원 접수처 : (054)249 -1023 휴대폰 : 010-4504-0174 ※ 새마을금고 : 9003-2169-3217-0 예금주 신재훈